대근주보

예수 성탄 대축일 | 2015. 12. 25. (다해) 제1977호







인자하신 아버지의 얼굴

모든 교구민의 가정에 아기 예수님께서 내리시 는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취 하신 주님께서는 그 사랑에서 아무도 제외하지 않 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 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2.47 참조).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천 사로부터 구세주 탄생의 전갈을 받은 목동들처럼.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맡겨졌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어 그분의 자비하 심을 이미 체험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 님께서 무서운 심판관이 아니라 인자하신 아버지 시라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는 지난 4월 11일 칙 서『자비의 얼굴』을 반포하시어 2015년 12월 8 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로부터 2016년 11월 20일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를 '자비 의 특별 희년'으로 지내도록 정하셨습니다. 희년은 구약 시대에 빚을 탕감해 주고 종살이하는 사람 을 풀어주며 저당 잡은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해였습니다. 오늘날 가톨릭교회는 보통 25년마다 한 번씩 성년(聖年)을 지내며 대사(大赦)를 베풉니 다만. 이번 자비의 특별 희년은 말 그대로 하느님 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선포되 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모토도 '아버지께서 자비 로우신 것처럼'(루카 6.36)입니다. 이 각박하고 인 정이 메말라가는 세상에, 세례의 은총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아버지의 인자하신 모 습을 보여 주자는 것이 교황님께서 특별 희년을 선포하신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구에서도 지난 대림 제3주일에 주교좌계 산성당의 문을 열며 자비의 특별 희년을 개막하였 습니다. 순례자들과 참회하는 이들을 위한 대사 도 물론 베풀어지지만, 또한 화해의 성사를 원하 는 이들이 언제든지 고해할 수 있도록 상설 고해 소를 교구청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언짢아하시지 않고 멀리 나갔다가 돌아 오는 자식을 보듯이 애끊는 심정으로 굽어보신다 는 것을, 희년을 시작하며 맞이한 이 성탄절에 우 리 모두가 더 깊이 깨우쳤으면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낱낱이 헤아려 그대로 갚 으시면, 과연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 죄를 벌하 시기보다 차라리 당신이 스스로 사람이 되시어 우 리가 치러야 할 죗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빚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빚을 없애 버리시려고 오 신 주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얼굴 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 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인자하신 하느님의 모 습이 더욱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5년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타대오) 대주교 +. 2 2 2/2 zf zn 4

대구 카리타스 자원봉사센터의 모습

문상화 시몬 | 대구 카리타스 자원봉사센터 총단장

빗방울이 간간이 떨어지는 어느 가을날, 오전 8 시 교구청 내 가톨릭사회복지회 앞마당. 한티성 지 풀뽑기 및 받농사 일손 돕기에 나서는 대구카 리타스자원봉사센터 소속 12명의 봉사단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비가 많이 오면 큰일인데, 하느님 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여기저기 걱정과 위로 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봉사단원들을 태운 승합차 는 정한시간에 어김없이 출발했습니다. 약속 시간 에 맞춰 도착한 카리타스 단원들은 현장 책임자로 부터 오늘 할 일을 배정 받고 일을 시작하기 전 사 도 바오로께서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 나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 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콜로 3.17)하신 말씀과 더불어 주님의 기도를 바 치자 거짓말 같이 간간이 떨어지던 빗방울이 산들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들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풀들을 뽑다가 지렁이를 발견한 한 자매의 소스라치는 비명소리에 깔깔대는 얄미운 아낙네들의 웃음소리는 풀 뽑는 손놀림에 흥을 더하니 어느새 그렇게 무성했던 풀들은 뽑혀져 마당은 깨끗이 정리정돈되고, 마당 한켠에 핀 들국화는 봉사단원들의 수고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대구 카리타스 자원봉사센터가 문을 연 지 1년 이 조금 지난 2014년 3월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샛터공원에서 주변에 외롭고 어렵게 사시는 노인 분들과 노숙자분들을 위해 카리타스 밥차가 출동하였습니다. 정성스레 지어낸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했고, 의료봉사단에서 노인 분들을 위한 혈압 측정. 뜸. 압봉봉사. 공연문화봉사단에서는 하모

니카 합주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정겨운 옛 노래 가락에 흥겨워진 할아버지께서 고래고래 고함에 가까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할아버지! 약주를 조금만 적게 드셔요." 진심어린 카리타스 봉사단원의 걱정에 몸을 겨우 가누시는 할아버지 눈은 잔잔한 감동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름진 할머니의 손을 잡고서 "할머니 어디가 아프셔요?" "늘 어쨋 죽지가 아파.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 쑥뜸과 압봉 봉사자들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에 할머니아픔은 쾌유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가을날 수염이 멋있는 한 할아버지께서 똑 바른 걸음걸이로 다가와 "오늘은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어. 앞으로 술 안 먹을거야." 하셨습니다. 공원 식탁에 둘러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술에 이야기꽃을 피우는 어르신네들의 샛터공원은 어느새 천상의 어머니께서 주관하셨던 '가나의혼인 잔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대구 카리타스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낸 샛터공원의 혼인잔치이며 카리타스 자원봉사센터의 모습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캄보디아 빈민지역 몰리뚜왓 지역을 지원하는 기쁨도 누린 바 있습니다. 대구 카리타스 자원봉사센터는 긴급재난재해 봉사단을 비롯해 7개 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봉사단은 '카리타스' 즉 '사랑, 애덕, 자선'을 고통중에 있는 이웃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멈추지말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 6,8) 🌉



성탄 **나**무,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시기가 되면 등장하는 아름답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600년경을 전후해 독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의 각 지방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성당 앞 정원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이른바 '낙원극'을 공연하였는데 "생명의 나무"(창세 1,9)를 상징하는 중요한 소품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상록수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부 독일 지방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파라다이스(낙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낙원극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는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나무에 요즈음에는 간편하게 꼬마전구로 장식하지만 원래는 사람들이 트리에다 촛불을 밝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장식을 하든지 이렇게 트리를 밝히는 빛들은 2천 년 전 그 감격스러웠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밤에 이 세상을 밝히려 강생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일년 내내 푸른빛을 간직하는 전나무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얻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트리로 전나무를 사용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8세기경 독일에 파견된 영국태생의 선교사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에 얽힌 전설입니다. 독일의 사도라고도 불리는 보니파시오 성인께서는 드루이드교를 신봉하던 게르만족들이 토르의 나무라고 숭배하며 해마다 인신공양을 해왔던 숲 속의 거대한 떡갈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나무를 사용해서 경당을 지었는데, 이 떡갈나무는 베어질 때 쓰러지면서 주위를 휩쓸어 옆에 있던 다른 나무들을 부러뜨려 죽여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니파시오 성인도 곧 토르의 신벌을 받아 죽을 것이며 자신들에게는 큰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없었고, 이듬해 봄에 베어진 떡갈나무의 그루터기를 찾아보니 그 나무가 휩쓸어버려 황폐해진 폐허 한가운데, 상처하나 없이 서있는 자그마한 전나무 묘목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합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은 이를 기적으로 여겼고, 그 아담한 전나무를 가리키며 하느님의 나무라고 부르며, 사람들에게 미신 행위를 그만두고 "이제부터는 이 나무를 가지고 돌아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라"고 가르친 데에서 오늘날 크리스마스 트리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墨





크리스마스 캐롤은 하느님께 대한 찬미,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본래는 중세 때 프랑스에서 동짓날 사람들이 둥근 원을 그리며 춤추던 노래로 그 어원은 프랑스어 'Carole'과 라틴어의 'carola', 헬라어 'choraulien'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노래'라는 뜻으로 '바이나흐트 리트 (Weihnachts Lied)'라고 하며, 프랑스에서는 '기쁨의 외침', '크리스마스'를 의미해 '노엘(Noel)'이라고 부릅니다.

캐롤이 교회에서 불려 지기 시작한 것은 5세기부터로 캐롤 때문에 성탄을 기다렸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3세기에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기 위해 구유를 마련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였는데 그 노래가 바로 오늘날의 캐롤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 구전으로 불리어 곡과 가사가 일<mark>정</mark>치 않았는데 14 세기 무렵부터 악보로 옮겨져 1521년에는 영국에서 최초로 캐롤집이 발간되었고, 15세기 말에는 궁정 작곡가들이 캐롤을 작곡해 서민들뿐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도 부르는 노래로 발전시키면서 캐롤이 왕성해졌습니다.

중세시대에 급속히 확산 되었던 캐롤은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19세기부터 다시 불려 지기 시작하였는데 영국에서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쓸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창문 밑에서 캐롤을 부르는 캐롤링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찬양으로 전했던 집집마다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캐롤 중에는 잘 알려진 곡으로 「천사의 찬송」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등과 같은 천사들의 노래가 많습니다. 이밖에도 「징글벨스」, 「빨간코 루돌프」 등 재미있고 흥겨운 내용의 캐롤이 많지만 성경과 교리 내용에 관계없는 것이라 미사전례에서는 부르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캐롤은 바로크 시대 이전부터 구전 되어 온 '저 들 밖에 한 밤중에'이며 1818년 오스트리아 성 니콜라우스 성당에서 사목하시던 요셉 모어 신부님이 작사하고, 음악교사인 프란츠 그루버가 작곡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캐롤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입당송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 제1독서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 화답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제2독서 [티토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 습니다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2,1-14]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 영성체송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예수 성탄 대축일

▲ 입당송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 제1독서 [이사 52,7-10]

〈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 화답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모두 보았네

▲ 제2독서 [히브 1.1-6]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 복음 [요한 1,1-18]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 영성체송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역시 말씀대로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아내

|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 12월 26일(토) 10:00 월성성당 |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 1월 2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
|------------------|-----------------------|--------------------|-----------------------|
|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 12월 28일(월) 11:00 도량성당 |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1월 2일(토) 11:00 대안성당 |
| 대구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 12월 28일(월) 11:00 계산성당 | 푸른군대 첫 토요 신심미사 | 1월 2일(토) 11:00 성모당 |
|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워회미사 | 12월 28일(토) 11:00 수성성당 | 발달 장애아와 가족을 위한 월미사 | 1월 3일(일) 16:00 성토마스성당 |

성소 | 피정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1.15(금) 13:00~17(일) 16:00 대상: 중·고·대학·일반 젊은이(35세 미만)

회비: 3만 원

문의: 음성꽃동네. (010)5490-5345

송구영신 감사 피정

기간: 12.31(목) 23:00~1.1(금) 4:00

장소: 성심교육관. (031)262-7600

출발: 시민회관 16:00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카타리나. (010)4515-1114

교육 | 모집

성령봉사회 2015 송년 철야기도회

기간: 12.25(금) 21:00~26(토) 2:00 장소: 고령 월막 대구성령봉사회 1박 2일 피정: 12.26(토)~27(일)

강사: 이상기(가브리엘), 김재중(요셉)

문의: (054)954-0951

2016 대구맨발가르멜재속회 회원 모집

첫째주 주일팀: (010)2686-3282 첫째주 월요일팀: (010)5590-2473 넷째주 주일팀: (010)2518-4008

넷째주 월요일팀: (010)8594-2655

제42차 수도 생활 체험 학교

문의: (010)8353-2323

기간: 1.28(목) 14:00~31(일) 14:0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워 대상: 고등부~만 32세 이하 미혼 남녀 이메일: osb3@hanmail net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1.29(금) 17:30~31(일) 4박 5일: 1.9(토) 14:00~13(수) 이냐시오: 1 29(금) 17:30~31(일) 문의: (031)946-2337~8

양로원어르신 모심(여성기초수급대상)

대상: 65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 하신 분 장소: 성모애덕의집(자애수녀원 운영) 문의: (054)976-6219 / (010)9568-0099

스칼라중창단 모집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우애관 내용: 발성. 찬양. 전례 대상: 남녀 청년(오디션)

신청: (010)9056-9005

2016학년도 전기2차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신입생 모집

접수: 1.5(화)~12(화)

모집: 사회복지 창조경제경영 국제다문 화, 음악, 한국안광학, 신학, 의료보건과학 문의: 660-5511~3

겨자씨성서모임 2016 심화반 신입생 모집

심화반: 월요일 10:00, 20:00 대상: 구약. 신약을 수료한 분. 말씀 안에서 더 깊은 영성생활을 원하는 분 문의: (010)6520-4627

장례지도사 국가자격무시험 교육생 모집

야간반: 선착순 25명 / 토: 13:00~21:20 월, 수, 금 18:30~22:20(주 20시간) 대상: 20세 이상 / 학력, 남녀 제한 없음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555-4404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15.12.10(목)~16.3.31(목) 대상: 성경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 문의: (031)8017-4239 http://cyberbible.casuwon.or.kr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 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24평형 계약중, 35평형 마감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 C HOUSING 21 C 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종 훈 (바오로)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달성군청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종문(파비올라)

성모<mark>아이</mark>한의원 감기졸업/성장(식욕부진 - 수면장애)/아토피/야뇨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 사 김 성 철(비오) 통국대한의학과 외래교수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애니타워 4F

아시우 신경 http://척추외과 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발아플땐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종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31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253-7476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이전진료

진료과목: 소아과,이비인후과,피부과,신경과 위·대장내시경,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5대암) 원장 이관식(루까) · 원장 서영익(미카엘)

경북대 치과병원과 삼덕네거리 사이 이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1번출구앞 2층(사대부고 맞은편

행사 | 모임

시니어 평생대학 정기 총회

일시: 1 11(월) 12:00~15:00

장소: 전인병원 8층 강당(중식 제공)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7

무지카우니카와 프란치스카눔 송년 미사

일시: 12.27(일) 19:00

장소: 프라치스카눔(윌배수도워 뒤)

문의: (070)4266-0047

가톨릭미용인회 모임

일시: 12 28(월) 20:00

장소: 요안나 미용학원(사대부초 옆)

문의: (010)6560-3086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제5회 7080 밥콘서트

일시: 12.27(일) 16:00, 19:00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 1만 원

교육 | 모집

가톨릭스카우트 학생(대원) 모집

기간: 1.1(금)~31(일) 특별모집기간

신청: 황창현 사무국장. (010)2810-8661 대상: 초3~중2(남, 여 가능)

참고: 본당게시판포스터, 다음 카페 찾기

틴스타(청소년 성교육) 워크숍

기간: 1.12(화)~15(금) 9:00~17:00

장소: 성토마스성당 / (010)6555-9330

대상: 성교육에 관심·봉사에 뜻이 있는 분

대구ME주말-가정. 가장가까운 교회

337차 ME주말: 1.8(금) 19:00~10(일) 338차 ME주말: 1.22(금) 19:00~2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부부는 작은교회 입니다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찾습니다.

역습: 매주(일) 18:00

오디션 후 파트결정합니다

문의: (010)3817-1963 / (010)3057-0707

채용 | 안내

교구 심리상담소 소람 계약직원 채용

자격: 대졸. 30세 이하, 1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마감: 1 22(일)

제출: kim-sinbu@hanmail.net

문의: 소람상담소, 250-3101

칠곡가톨릭병원 영양과 조리원 채용

대상: 만 53세 이하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보건증 문의: 320-2135~2138

성요셉요양병원 간호사 채용

자격: 간호사 면허증소지자

인워: ()명

문의: 간호과장. (010)9391-2643

610-3623

요양원 입주자, 물리치료사 채용

입주: 장기요양 1~5등급(여성어르신) 채용: 물리치료사 / 위치: 팔달교 근처

문의: 파티마홈. 324-1188

교구 법원 공시(253-9550)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양미숙(크리스티나). 황재규 (베네딕도). 황정남(정하상 바오로)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 이용방법: 전화, 내방(무료상담). 사이버상담 / 상담전화: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보다 세련되고 슬림한 사이즈의

2016년 신앙다이어리 출시

판매가: 10.000원

판매처: 교구 문화홍보실, 계산서원, 성바오로서원, 성바오로딸서원, 바티카노, 삼덕성당 임마꿀라따 성물방, 동천성당 성물방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이상도 대한 뇌전증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프란치스꼬)

현대백화점 뒤 **5** 053)252-0418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한투어

2016년 6월초 산티아고 도보순례단 모집

5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원장/전문의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할성고 맞은

척추전문병원

척추 • 어깨 • 무릎

💢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흡(요한)

송현역 2번 출구





HAN KWANG 안젤라 권순화 한광 010-9357-9988